

■여수산단 잇단 정전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변압기 등 장비 노후...전선 복선화 시급

전남의 산업 젖줄인 여수산단의 잇따른 정전사고로 산업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일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한 뒤 '엇친 데 덮친 격'으로 사흘 만인 6일 여천NCC 3공장이 또 다시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책임 공방에 앞서 한전의 전선 복선화와 노후화된 공단 내 시설 등 여수산단의 전력공급 체계를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일 오후 여천 NCC 3공장의 정전 원인은 20년 된 변압기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정전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전력 시설 노후화와 한전의 전력 공급 체계 문제로 압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한화석유화학의 나뮴총력 보호장치와 여천NCC의 변압기 노후화가 직접적인 정전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들 장비는 모두 20년 이상 낡은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석유화학 관계자는 "피뢰기는 설치한 지 28년 된 제품이지만,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계에서도 보통 30~40년 가량 사용한다"고 말했다.

▲여천NCC=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여천 NCC공장은 제1·2·3공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 공장은 에틸렌(연간 181만2천t), 프로필렌(91만1천t), 벤젠(39만6천t) 등을 생산해, 대립산업과 한화 측에 원료를 공급해 준다. 대립과 한화석유화학 측은 이 원료를 이용, 성형제 폼이나 필름 등을 생산한다.

일교차 커요 5월 7일 (음 4월 3일) <전국날씨> 광주지법 관련 날씨 정보와 전국 날씨 지도, 주간 날씨 예보 표.

'방과후 학교' 학원 강사 허용 0교시·우열반 편성은 금지

광주·전남도교육청이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도내 초·중·고교 '방과후학교'에서 학원 강사의 강의가 허용되고, 고교 사설 모의고사 참여도 가능해지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지침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했다. '우열반 편성' 역시 금지된다. 그러나 중1~고1 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 교과 중심으로 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권장하도록 했다. '방과후학교'는 비영리단체의 위탁을 영만을 허용키로 해 개별 강사의 강의는 가능하도록 했다.



U대회 유치 기원 걷기대회 5일 광주시 동구 올림픽동 동적골 산책로 일대에서 '제1회 동구 구민 건 강걷기대회'가 열렸다.

'젊은 부부' 이혼율 전체 평균의 10배

24세 이하 1천명 당 50명 꼴 갈라서... 매년 급증세 국제결혼 급증 등의 여파로 지난해 '젊은 부부'들의 이혼율이 전체 평균의 10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은 사랑의 법원? 직원 10명 중 1명이 부부

법원에서 사랑을 꼭 피워 결혼에 골인한 직원이 50명이 넘는 정도로 법원 내 부부직원이 크게 늘고 있다. 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법관을 제외한 광주지법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부 직원은 21쌍, 전체 직원 395명 중 46명이 직장 동료 겸 부부다.

생활안내 광고 -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 합격률 전국 1위 =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공무원 완전 대비 - 지금 벌써 많은 수험생들은 09년도 시험대비에 몰입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